

# 秋史의 濟州 教學活動 研究\*

梁淳秘\*\* 梁鎮健\*\*\*

目 次	
1. 秋史의 教育生涯評釋	1) 流配
1) 시대	2) 教學系譜
2) 修學	3) 教學活動
2. 秋史의 教學思想論	4. 맺는말
3. 秋史의 濟州에서의 教學活動	

## 1. 秋史의 教育生涯評釋

### 1) 시대

秋史 金正喜(1786~1856, 정조10~철종7)는 성리학적 인간관과 세계관의 한계성을 극복하려는 사상적 反正운동인 實學의 實事求是學派 계열 학자이면서 교육자이다. 실학이란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시작된 자생적인 사상사적 각성운동으로서 조선조 교학사상의 지표였던 성리학적 道學精神이 시간의 흐름과 겹친 내우외환으로, 차분했던 탐구적 기분을 상실하고 명분과 사변적인 관념론으

\* 本稿는 『朝鮮朝 濟州教育思想史』의 연구를 위한 보충적 작업으로서 아직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관계로 시도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밝힌다.

\*\*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長, 文學博士

\*\*\* 濟州大學校 師範大學 講師

로 전락하기에 이르자 이러한 사상사적 흐름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고자 했던 일련의 사상적 개혁운동이다. 추사는 그 생애의 대부분을 이러한 사상적 분열 현상이 만개하기 시작하던 시기에 보냈으며 몸소 학과의 원류로서 두각을 보인다.

종래의 詞章을 주모하는 관념적인 학풍을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이어야 한다는 실학의 사상사적 조류는 권위에 대한 비판과 독창적인 자유성을 일게 하였으며 경험적, 실증적, 귀납적인 방법성을 토대로 현실과 유리된 한갓된 관념의 유희를 멀리하는 과학적인 태도를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시대정신은 양명학의 유입으로 인한 자극과 새로이 창도된 訓詁考證의 한학에 대한 연구방법 등으로 풍조가 조성되었던 것이다. 특히 추사의 출생 전야는 개혁을 주장하는 일부 문사들 사이에서 성리학 자체에 대한 회의를 품고 청대에서 일어난 고증학을 받아들여 기본적 변혁을 시도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움직임이 급격히 일기 시작하던 때였다. 이들은 소위 北學派로 국정쇄신을 꿈꾸던 정조의 후원으로 서서히 성장하여 마침내는 문예부흥의 정조조를 이룩하기에 이르렀다.

북학은 대체로 영조40년(1764)대로부터 그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는 金昌協의 여행에서 싹이 텄다. 그 뒤 洪大容과 朴趾源 등은 초기의 주창자라고 할 수 있다. 李德懋·朴齊家·南公轍·李書九 등에 이르러서 본체에 이르렀는데<sup>1)</sup> 특히 이들의 「韓客巾衍集」이 청대 문사들에게 호평을 받아 그와 같이 갔던 중인 계층의 수행원이나 역관의 위치가 돋보이게 됐다. 곧 그들이 직접 청대문사와의 필담과 교환에서의 수작이 그들에 비겨 동등임을 깨달은 이들 중인 계층의 활동은 곧장 인간의 발전을 가져왔고 또한 새로운 풍조를 불러 일으켜 이른바 평민문학을 일으켰다. 곧 박제가는 「北學議」를 저술하여 북학의 정의를 천명하였고 홍대용은 「燕行錄」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게 했고 한편 강진에 유배된 정약용은 유명한 「牧民心書」와 「欽欽新書」 그리고 「經世遺表」를 통해 목민관의 구실은 물론 행정과 세계, 그리고 버림받은 농민의 실상을 폭로하여 만민평등의 불씨를 보수의 화로에 앉히기에 이르렀다.

추사는 바로 이들의 뒤를 이어 해성처럼 나타난 재학으로 박제가 등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한편 청대 문사들과의 직접적이고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실

1) 藤塚巖; 《清朝文化東傳の研究》, 日本, 國書刊行會, 1975, pp.76~78.

학의 전통을 집대성한 실사구시학과의 원류였던 것이다.

## 2) 修學

추사가 나이 6세 때 ‘첫 스승’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당시 나이 42세이던 楚井 朴齊家가 바로 그다. 초정은 청나라에 가서 이조원·반정균 등의 청대 문사들에게 새 학문을 배워 「북학의」를 집필함으로써 실생활에 있어서의 기구와 시설의 개선을 역설하고 정치·사회제도의 전반적인 모순을 개혁할 것을 주장했던 실학의 利用厚生學派 계열 학자로서 당대의 석학이었다. 추사 나이 6세 되던 해에 立春帖을 썼는데 초정이 그것을 보고 크게 경탄하여 ‘吾將開而成之’(내가 장차 가르쳐 성가 시키겠다)라고 하였다 한다.<sup>2)</sup> 이 때의 ‘만남’은 추사에게 있어서는 실로 은혜라고 할 수 있다. 사람에게 있어 스승 없는 아님 스승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이 사람됨이 이루어지는 일은 힘들다. 한편 좋은 제자 없이 훌륭한 스승이 기억되는 일 또한 어렵다. 그러므로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을 「서로 만남」이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첫 스승’의 교육적 의미는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결정적인 구실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첫 스승과의 만남은 운명적이라고까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사의 운명은 그의 나이 15세 되던 해(1800)에 초정에게 사사받음으로써 성가 시키겠다는 약속이 실현된다.

초정은 중국을 세번이나 내왕하며 청대의 석학들과 사귀면서 실사구시의 고증학을 폭넓게 접하여 경세치용의 길을 추사에게 직접 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고 또한 학문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 주게 되었는데 추사는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약관의 나이로 학문이 높은 경지에 이르러 국내의 학문과 학자에 만족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 때의 심경을 시로 남겼는데 이 시는 한편의 立志大期의 교육적 자경문이라 할 수 있다.

느닷없이 별스런 생각이 나니  
천하의 마음 맞는 이와 뜻을 나누고자  
만약에 마음 나눌 친구가 있다면  
덧없이 죽어도 한이 없으련만

2) 金泳鎬; “秋史 金正喜”, 《文學思想》 50號, 1976. 11, pp. 314~319.

천하에는 명사들이 많기도 많은데  
나는 거기에 속하지 못하니 부럽기 그지없다. (의역)<sup>3)</sup>

추사는 그의 아버지가 동지사겸 사은사의 부사가 되어 연경으로 가게 되어 그를 수행하게 되자 평소 갈망하던 연경학제를 볼 수 있게 되고 동양학문의 중심지인 연경에서 청대의 석학들과 만나서 마음껏 자신을 헤아리고 석학의 높은 경지를 맞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위의 시에서 볼 수 있던 갈망을 해소하게 된다. 이 때가 바로 생원시에 급제한 그의 나이 24세 때였다. 이 때 비로소 추사는 '두번째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翁方綱과 阮元,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써 학문의 결정적 전기를 맞게 된다.

곧 옹방강으로부터는 그의 서재인 石墨書樓에 초치되어 비장인 「宋拓化度寺故僧邕禪師舍利塔銘」·「唐刻本孔子廟堂碑」 그리고 「詩墳刻石拓本」·「漢畫武梁祠石像拓本」 등 실로 진귀한 金石書畫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經義도 논하였으며 옹방강의 폭넓은 학문과 너그러운 학덕에 심취하여 경도하였고 옹방강 역시 추사의 문장과 학술에 대한 비범한 조예에 경탄하여 '經術文章 海東第一'이라고 크게 칭찬을 할 정도였다.<sup>4)</sup> 이 사사로 해서 그의 별호를 覃研齋로 삼고 못내는 그의 시집을 「覃研齋詩藁」로 붙이기도 했다. 한편 옹방강과 쌍벽을 이루며 청대의 鴻儒로 손꼽히던 완원과도 학연을 맺게 되었는데 완원은 추사를 그의 泰華雙碑之館에 초치하여 진귀한 勝雪茶를 마시며 經義를 담론하고 古拓인 秦의 「泰山石刻殘篆」과 宋拓 「漢西嶽華山廟碑」·「唐禎觀造像銅碑」 등의 搨本을 완상하고 많은 경서와 「阮元文集」을 선사받았다.<sup>5)</sup> 이로 말미암아 훗날 그의 별호를 阮堂으로 굳힌 빌미이기도 하다.

추사에게 있어 옹방강과 완원 이 두 스승과의 만남은 하나의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으로 추사는 금석학의 방법론에 깊이 경도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옛 선비의 사제관계가 단순히 執贄(弟子禮를 통한 執經受業)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대면이 없는 서한교육(問目)만으로도 사제관계는 성립될 수 있었으며 단 한번의 禮訪으로도 가능하였다. 오직 사제동행이라는 '서

3)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新誠文化社 影印本, 1972. 卷10. 詩  
慨然起別想 四海結知己 如得契心人 可以爲一死 日下多名士 艷羨不自己

4) 藤塚堯; Ibid., pp. 85~103.

5) op. cit., Ibid., pp. 104~118.

로 만남' 속에서 心許하여 종평생 「事之」·「私淑」하는 실질적 관계도 존재한다. 그들은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세계 안에서 서로 만났지만 서로 같은 이해와 가치평가를 지닐 수 있었으며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 참다운 자기실현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만남이 인격적인 독립성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은 운명적이고 돌발적인 하나의 '사건'인 것이다.

추사의 수업시대는 이렇게 첫 스승 박제가, 두번째 스승 옹방강과 완원과의 만남으로 대별이 된다.

## 2. 秋史의 教學思想論

추사의 학통은 언급하였듯이 박제가에서 비롯되는데 박제는 박지원의 清朝學的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학문적 계보는 조선조 성리학적 교학 정신의 질서체계인 道統과 구별이 되는 이른바 反正的 흐름이다. 추사는 理로써 학문을 삼고 道로써 統을 삼으며 心으로써 宗을 삼으나 이것을 탐구하기가 茫茫하고 이것을 六經에서 思索하기가 아득하니 오히려 이것을 구하는 것보다 못하다<sup>6)</sup>고 함으로써 理學·道統·心學을 거부하고 經學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도통의 거부는 조선조 성리학의 사상사적 계보에 대한 반발이던 것이다. 이 반발은 곧 당시 조선조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병폐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였는데 조선조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병폐는 그대로 교육 현장으로 옮겨 허식적이며 詞章 위주의 관념적인 교육이 횡행하고 있었으므로 추사의 반발은 곧 이러한 병폐를 제거하고 새로운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철학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에 추사는 학문하는데 있어 가장 요긴한 도리가 실사구시라고<sup>7)</sup> 지적함으로써 새로운 교육철학의 출현 가능성을 예고하였다.

사실 새로운 교육철학의 요구는 종래의 교육목적, 내용, 제도상의 전면적 개혁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특히 당시 교육풍토의 쇠신과 교육부실의 요인을 실

6) 夫以理爲學 以道爲統 以心爲宗 探之茫茫 索之冥冥 不若反求諸六經 (阮堂先生全集 卷1, 私蔽辨)

7) 實事求是, 此語乃學問最要之道 (阮堂先生全集 卷1, 實事求是說) 가치판단의 기준을 사실에서 구하고 경험적이고 사실적인 躬行만이 실사구시에 상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가장 중요한 학문의 방법으로서 실사구시를 들었다.

학자들은 명분론적인 입장보다는 첫째,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과거 합격을 통한 입신영달에의 집념에서 유래되었음을 지적하였으며, 둘째 봉건적 사농공상에 입각한 직업관의 협파 즉 사회적 통속인 노동을 천시하는 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礪溪 유형원 같은 이는 당시의 교육제도의 모순인 자가당착적 현상을 개선하지 않는 한 사회적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는 것을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실학이 특히 교육철학에 있어서 새로운 사회윤리관을 강조한 것은 주목할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즉 당시 일반적인 교육목적은 학문을 닦아 입신영달을 꾀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 농업·상업·공업 등 직접적인 생산활동을 한다는 것은 글을 읽는 선비에게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통념은 결과적으로 교육 받은 계층이 생산활동을 외면하는 사태를 가져오고 끝내 산업의 부진요인이 되었으며 사회적 발전을 정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교육 받은 자는 관계 진출이리는 제한된 자리를 두고 아귀다툼을 벌리게 되어 당쟁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던 것이다. 모름지기 모든 선비는 먼저 생업에 힘써서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실학은 강조하였으며 어떠한 직업인들 의리를 잃지 않는다면 직업에 따라 귀천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실학자들의 주장이었다.

세째, 실학자들은 학문의 생활화를 주장했는데 연암이나 초정 등의 저술에서 강조되었듯이 학문이라면 고답적인 명분이나 형식을 따지는 공허한 입씨름으로 착각해왔던 풍토에 수레 이용에서부터 산업 일반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소중히 제시하여 생활의 개선을 교도하고자 하였다. 학문의 올바른 길은 실사구시에 의하여 실천하는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여 공소한 관념적 학문을 떠나 실생활에 적용되는 실천적 교육관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실천적 교육관의 강조는 종래의 형이상학적 도덕학에의 반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상사적 흐름은 추사에 이르러 철저히 강화되어 마침내 聖賢의 道란 실천을 주로 하는 것이니 모두가 실사구시의 뜻이다<sup>8)</sup>라고 주장함으로써 程朱의 理學·陸王의 心學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나선다. 추사는 학

8) 聖賢之道 無非實踐 而皆實事求是之義也(阮堂先生全集 卷1, 格物辨) 즉 성현의 도란 인간의 주체적인 행동에 있으니 虛事가 아니고 實事인 경험적 사실과 주체적인 정신적 요소로서의 躬行이 합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의 핵심을 먼저 그 근원을 파악한 후에 자기의 판단을 확립시켜 이를 실천에 옮기는 데 두었던 것이다. 경학에 전심하면서도 漢·宋을 구별하지 않은 것은 학문의 是와 非를 잃지 않으려 함이었고 따라서 그는 송대 문사들의 공론에 치중하고 실행이 없는 학설을 배격하고 실용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학문만을 취하였는데 이는 옹방강의 영향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학에 있어서도 실증적이고 고증적인 史眼을 강조했는데 이와 같은 실사구시적 방법에 입각한 그의 학구적 태도는 특히 금석학에 있어서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추사의 금석학에의 경도는 그의 교학사상의 경험주의적 인식론을 반증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는 仁義道德의 요지로부터 禮樂刑政의 大義, 宮室衣服, 粟米麻絲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格致의 用이라 할 수 있으며 格致란 자신이 체득하고 사물에서 경험할 뿐이다<sup>9)</sup>라고 함으로써 지식의 대상은 도덕·정치·법률·건축·의복·경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것이며 자기의 경험에 의하여 인식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경험주의적 인식방법의 발로가 곧 금석학에의 경도를 유도했고 실천·실사 즉 일상생활에서 타당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곧 그의 실사구시적 교학사상이라는 실사구시설이 인식에 적용된 예이다. 이렇듯 추사의 교학사상은 청대의 고증학과 금석학 그리고 경학 등의 학문적 영향 위에서 그의 천재적 천성과 불굴의 노력으로 詩·書·畫·篆刻의 四絶로 결실을 맺어 조선조 후기의 사상계에 우뚝한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 3. 秋史의 濟州에서의 教學活動

#### 1) 流配

추사의 학문적 활동은 1840년 윤상도 옥사가 재론되기 전까지는 평탄한 출사기를 보내다가 이 사건으로 그의 나이 55세에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를 가게 된다.<sup>10)</sup> 絶島安置와 園籬安置의 가혹한 형벌앞에 선 종신 무기수로서 추사는 9년이라는 중요한 후반생을 제주도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추사의 제주유배는 나이 어린 현종이 즉위하여 순원왕후 강씨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어 안동 김씨

9) 自仁義道德之旨 禮樂刑政之義 至於宮室衣服 粟米麻絲 可謂盡格致之用矣 格致者 體於身 驗於事而已(阮堂先生全集 卷7, 書韓文公原道後)

10) 《憲宗實錄》 권7, 6년 庚子 9월 辛卯條, ‘菊囚罪人正喜大靜縣’

의 세도가 극에 이르자 현종의 외가인 풍양 조씨에게 세도를 빼앗길 것을 염려하여 안동 김씨가 풍양 조씨의 기선을 제압하는 방책으로 풍양 조씨와 가까운 추사일문을 강타하게 되는데 이때 안동 김씨의 정치극의 일환으로 자행된 것이다.

조선조 형률제도의 하나로서 유배는 그 발생이 주로 정치적 상황인 당쟁에 기인한 것이 지배적이며 정치를 통하여 참정하고 집권한 자가 정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취해진 행형적 소산이었다. 유배는 정치적으로 중죄를 범한 자에게 사형까지는 과하지 않고 원격지로 보내어 종신토록 다시 귀환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로서 특히 제주도과 같은 섬에는 죄명이 특별히 중한 자들에게 해당이 되었었다. 당쟁이라는 조선조 특유의 정치적 메카니즘은 우승투쟁의 성격을 띤 일종의 생존경쟁으로서 이 경쟁에서 결과된 유배제도는 조선조 정치인의 현실에의 집착을 거세시켜 버리고 정치인의 의미성과 존재성을 박탈하는 기능을 하였다.<sup>11)</sup>

유배로 인한 외로움과 절망감은 많은 유배자들에게 자기 상실의 고통을 안겨 주기도 했지만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배인들이야말로 문화전달의 messenger였다. 지리적인 이유로 조선조의 제주도는 행정적, 문화적 소외가 당연시되었던 지역이었으며 특히 교육적 소외는 그 심도가 컸는데 사회와 당쟁 등의 정변으로 인하여 고위 정객과 지식인들이 제주도에 유배를 와서 직접 간접으로 제주도민들의 학문과 예절을 교화함으로써 제주도의 문화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배인들에 의하여 학문의 敎導를 받았고 예절과 생활방식 등에도 심대한 영향을 받았던 것이며 더구나 유배인 중에는 석방되지 못하여 일생을 제주도에서 지낸 자와 혹은 도민들과의 혈연관계를 이루어 자손들을 낳은 자도 있었는데 유배인들은 지식인이요 문화인이었으므로 계속하여 제주도의 학문발전과 문화향상에 관계되었고 공헌되었던 것이다.<sup>12)</sup>

추사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유배라는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그는 일단 유배지의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적응의 생활태도를 보여 준다. 이것은 물론 제주도 유배자로서 추사가 더 이상 조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절도 위리안치

11) 梁淳秘: “朝鮮朝 流配文學研究: 濟州島를 중심으로”, 建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2. p.11참조.

12) 金泰能: 《濟州島史論攷》, 世起文化社 1982. p.77.

의 중형을 받았음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던 탓도 있겠지만 추사의 자상하면서도 침착하고 강인한 성품 탓에서도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추사의 제주 대정현 유배생활 9년의 많은 업적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된다. 중형의 유배자의 경우 유배지의 목사나 향리의 배려로 유폐되는 일을 겨우 모면할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서 유배지 주민들과의 인간적인 접촉과 교류가 가능했었다. 추사는 이런 기회를 빌어 유배지 주민들과의 흥학교화의 동화를 통하여 죄수라기보다는 타향의 견문을 넓히면서 潛心道學하며 인격을 수양하고 자기의 매를 기다리는 삶의 한 율틈으로 교육자 또는 자기 완성자로서 많은 성과를 남겼다. 따라서 추사는 유배지의 현지에 권위적으로 관계하기보다는 현지의 사정과 조화하여 동화함으로써 현지 주민들의 지식과 교양 등을 자극하고 교류하면서 유배지 문화권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 2) 教學系譜

전반적으로 볼 때 제주도에서 유배인들의 교학활동은 일개인의 개별적인 활동이 아니라 道統의 전체적 흐름과 맥락을 함께하는 활동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유배인들의 대개가 도통유현들과 學統의 사제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과 제주유림과의 관계도 사제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맥락을 놓치게 되면 조선조의 제주교육에 대한 파악은 사유의 종단적인 단절현상을 겪게 되며 자칫하다간 유배인들의 활동을 척박한 땅에 대한 일개인의 恩典으로 이해할 위험을 낳게 된다. 이같은 위험은 조선조의 제주를 의식의 변경으로 못박음과 동시에 제주의 사상사 자체를 부정하는 과오를 자초하게 됨은 물론이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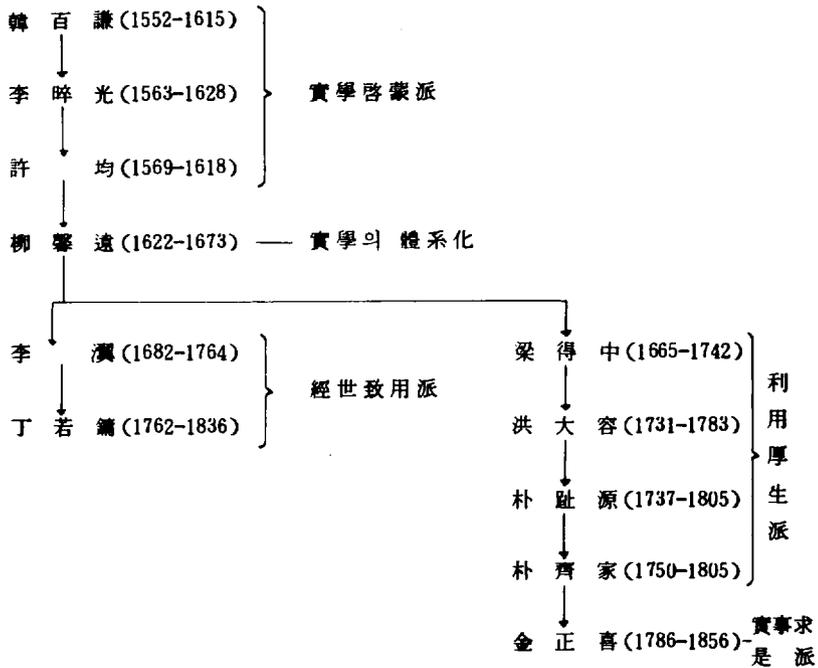
그런데 도통이란 조선조 성리학의 사상사적 계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리학적 이념에 반기를 든 추사의 교학활동은 다른 유배인들의 활동과 계보구별이 요구된다. 즉 추사의 학문적 흐름은 정몽주로부터 시작해서 최익현으로 마감되는 성리학의 사상사적 계보와는 다른 학통의 사제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추사와 제주유림과의 관계 또한 기존의 관계맺음들과는 구별이 된다는

13) 梁鎭健; “朝鮮朝 濟州教育의 精神史的 系譜”, 제주도연구회 26차 월례발표회 발표요지, 1986. 9. 27, p. 2.

얘기다. 추사의 사상계보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洪大容 → 朴趾源 → 朴齊家 → 金正喜

이러한 추사의 사상계보는 곧 실학의 사상계보이기도 한데 아직 대체로 합의를 본 계보는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실학의 전체적인 사상계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하게 되는 것은 실학의 계보라는 것이 성리학의 반정적 흐름이긴 하나 성리학의 사상사적 계보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독자적 세력이 라기보다는 성리학의 사상사적 맥락과 접속된 흐름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실학이라는 것이 한대의 훈고학이나 송대 혹은 명대의 성리학이나 양명학 또는 청대의 고증학 중의 어느 하나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

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실학의 사상사적 바탕은 어떤 교리(doctrine)의 史的 觀點에서 볼 것이 아니라 기존 정치질서 또는 이 질서를 지탱하게 하는 정치사상의 변화라는 개혁논리의 觀點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적은 추사나 혹은 실학의 계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더욱 確證해진다.

추사의 사상계보 형성에 있어 홍대용은 漢湖 金元行과 사계관계를 형성한 인물이었는데 김원행은 이미 李穡→김원행의 도통계보를 형성하고 있었던 정통 성리학자였다. 김원행과 홍대용의 사계관계는 매우 밀접해서 김원행은 자기의 제자되는 홍대용을 극찬하고 사랑했는데 홍대용이 실학에 경도하여 양득중 등과 학통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김원행의 할아버지인 金昌協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학의 사상적 도화선을 전파시킨 김창협 또한 도통의 인물인 바 홍대용의 대체적인 사상적 입장은 사상상으로는 성리학에 대해 강한 회의론을 나타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성리학의 사상적 범주에 머물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검토는 실학의 사상사적 흐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게 하는데 실학계몽파나 유형원 등에서 볼 수 있는 성리학을 제대로 구현함으로써 유학의 본뜻을 살릴 수 있다는 흐름이 그 첫번째이고 둘째는 홍대용이나 이익의 경우로서 원시유교에의 복귀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성리학의 사상 범주에 머물렀던 흐름이고 셋째는 적어도 사상상으로는 성리학의 울을 떠나 자유롭게 유학의 계 부류를 비판, 소화하였던 경우인데 정약용이 그 대표적이며 추사 또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세번째 흐름의 대표자인 정약용의 경우는 李滉→鄭述→許眉叟→李瀾→丁若鏞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퇴계 학파의 학통을 형성하였는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실학은 성리학의 세례 속에 성장 가능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즉 추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성리학의 사상사적 계보와는 다른 학통의 사계관계를 형성하였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성리학의 세례 속에 가능했다는 얘기다. 원래 사상이란 단절이나 돌연한 출현이 있을 수 없는 문화의 集積이라는 자체의 성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사상에 대한 도전과 조화라는 상호교접의 차원에서 실학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즉 17세기 당시의 시공간적 특수성에 따라 제약을 받거나 혹은 자극되어 발현된 실학은 1차적으로 기존사상이었

던 성리학과의 관계에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인 것이다.

이러한 실학의 사상 계보적 특수성은 그대로 추사에게로 이월이 되는데 제주도에서 유배 동안 형성되어지는 추사의 유배지 교학계보 또한 그러한 특수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추사가 제주도에서 벌인 교학활동은 9년이란 세월과 결맞게 다양하고 풍부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추사의 학통 전수는 다른 유배인들이 제주도에서 기왕에 맺었던 학연들보다 더욱 활발했다. 추사 이전에도 제주도에 많은 유배인들에 의해 형성된 학문적 계보들이 있었지만<sup>14)</sup> 추사만큼 다인수이질 못했고 또한 추사만큼 다방면이질 못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詩文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書·畫·篆刻 등 전반에 걸쳐 있고 있었기에 추사의 제주지역 학문적 계보는 그 특이성이 눈에 띄는 것이다.



제주지역 김정희 학통의 初傳(제1대 제자)으로 기록될 수 있는 사람들로 엮어진 학문적 계보는 위와 같으며 이러한 초전적 역할의 인물들이 많다는 사실은 그만큼 추사의 교학활동이 폭이 넓고 깊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3) 教學活動

추사의 교학활동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서도에 관한 것인데 추사의 영향으로 서도에 능하여 濟州 筆苑으로 수록된 이는 박계침, 김구오, 강도순이가 손

14) 이와 관련해서는 “朝鮮朝 濟州教育의 精神史的 系譜, 朝鮮船 濟州教育의 정신사적 전개”(계대신문 304호) 등 梁鎭健의 拙稿를 참조하기 바람.

꼽힌다. 추사는 金石의 가치를 書體에 직결시키고 서법연구의 주안점을 금석학에 두었기 때문에 교학활동에 있어 서도의 강조는 그의 당연한 학문적 방법론이었다. 특히 詩·書·畫 일치의 학문적 방법론은 제주유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영향력이 있었다. 조선조 중기 임진왜란 이후부터 현저하게 쇠퇴한 서법을 그가 출현함으로써 청대학술의 영향에 근거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채득, 대성한 立論들이 바로 그러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서법을 한갓 臨摹만으로 안 되고 경험에 의한 새로운 방법론으로 지름길을 깨치라는 가르침은 분명 진폭이 큰 울림이었으리라 짐작된다.

법은 사람마다 전할 수 있지만 정신과 흥치의 일어남은 곧 사람마다 스스로 도달하는 것이다. 정신이 없는 사람은 글씨 쓰는 법식이 비록 불만하다 하더라도 오래 찾아 즐긴다 하지 못하고 흥치가 일지 않는 사람은 글자의 모양이 비록 아름답다 하나 겨우 글씨장으로 일컬어질 뿐이다. 기세가 가슴 속에 있어야 글자 속과 글줄 사이에 흘러 넘치게 되니 혹은 웅장하기도 하고 혹은 느리기도 하여 막을 수가 없게 된다. 만약에 겨우 점이나 획 위에 있는 것으로 논한다면 기세는 오히려 한층 막힌 것이다.<sup>15)</sup>

書家 정신이 있어야 하고 흥치가 일지 않을 때는 글씨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기세가 가슴 속에 있어야 비로소 글자속과 글줄 사이에 흘러서 넘치게 된다는 이러한 가르침은 비단 서도에 한한 가르침만이 아니라 예술을 통한 교육이며 하나의 교육을 위한 예술적 가르침으로서 예술교육의<sup>16)</sup> 사상이기 때문에 더욱 그 가치가 중한 것이다.

많은 유배인들의 교학활동이 추사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있었지만 그 가르침이란 대부분이 禮學의 詞章 중심이었으며 다분히 관념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추사의 詩·書·畫 일치의 학문적 방법론은 정신과정의 총체이기 때문에 그의 서도 정신은 곧 그대로 스스로를 교육하는 마음이었고 제자들을 교육하는 자

15) 法可以人人傳 精神興會 則人人所自致 無精神者 書法雖可觀, 不能耐久索飢, 無興會者 字體雖佳 僅稱字匠 氣勢在胸中 流露於裏行間, 或雄壯 或紆徐 不可阻遏 若僅在點畫上論 氣勢尙隔一層 (阮堂先生全集 卷8, 雜識)

16) 추사의 예술교육사상은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한 언급은 사양했다. 梁鎭健이가 전개하고 있는 「추사의 教育哲學」의 연구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이기도 하므로 그의 예술교육의 사상은 그만큼 영향력이 실질적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실사구시설에 입각한 그의 경험론적 교육관은 제주유림의 분위기에 신선한 경종이 되었으리라는 것은 초전적 역할의 인물들의 활동상에서도 익히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강사공은 대정향교의 의문당에 추사의 친필을 받아 조각하여 현판하였으며 특히 박계첨은 서예에 추사체를 정득하였다고 하는데 추사가 방면되어 육지로 가서 그를 불렀을 때 어떤 자의 질시로 독살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강사공이나 박계첨, 그리고 김구오, 강도순 등은 추사의 서도를 통한 예술교육에 깊이 경도하였던 것이다. 이밖에 허숙이나 이시형 혹은 김여추, 이한진 등도 추사에게 수학할 하였고 자기 시문에 능하였는데 이러한 사제관계를 통해 추사는 그의 실사구시 사상을 전파할 수 있었다.

서도와 함께 김정희의 교학활동 중에 또 하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篆刻이다. 원래 전각은 중국의 진·한대에서부터 활발하게 궤도에 올라서 송대에 이르러 전각의 감상이 비롯되었다. 전각의 서체는 한대에 극도로 발달했다가 당·송에 이르러서는 그 격이 매우 떨어졌다. 그 후 원대에 이르러 복고를 내세웠고 청대의 고증학과 더불어 금석학의 발달을 보게 됨에 따라 전각이 면모를 크게 일신하였으며 특히 鄧石如是 漢印의 刻을 본받아 새로운 전각풍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추사는 이에 영향을 받아 古印譜를 구득하여 직접 진·한의 實影을 본받게 되어 그의 전각은 청대의 그것을 뛰어 넘은 眞境을 스스로 닦게 되었으며 점차 그의 독특한 전각풍을 이룩하게 되었다.<sup>17)</sup>

추사가 제주에 유배온 후 여러 면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언급한 바이지만 추사로부터 경학·서화·시 등에 眞訣을 체득한 이가 많은 것으로 보아 전각에 접근하려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그중에도 蘇齊 김구오가 升堂하였고 그의 아들 愚齋(성명 미상)가 정통을 이었고 우제의 아들 研山 金義男이 家法을 따랐다. 연산을 研農 洪鍾時가 이었고 연농을 朴판사(성명미상)가 전승했다.<sup>18)</sup> 즉 추사의 전각예술적 활동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다.

17) 金膺顯, “署押과 印章, 書藝”, 《韓國의 美》 6, 중앙일보사 1981, pp. 207~220.

18) 전성호; “청탄선생에 의해 이어진 제주전각 예술의 맥”, 《관광제주》 23호, 1986. 10. p. 45.

秋史 → 金九五 → 愚齋 → 金義男 → 洪鍾時 → 朴判事

이러한 계보는 거의 그대로 제주도에서의 추사의 교학활동에 따른 추사의 학문적 계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추사의 학문적 방법론이 시서화 일치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즉 김구오는 앞에서도 거론하였듯이 전각만이 아니라 서예에도 추사에게 충실했으며 이렇게 볼 때 추사의 교학적 영향력이란 단편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은 더 나아가 受學者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스승 즉 교육자의 길은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포괄적인 인격과의 해후 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추사가 아무리 서예에 뛰어나고 전각 등에 출중했다 하더라도 그의 인격적 덕망이 스승다움이 없었다면 그의 사제관계는 그렇듯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추사의 바로 그러한 포괄적인 학문적 방법론을 이끌어가는 그의 인격 때문에 유배 중에도 李尙迪이나 許維, 草衣 등의 내방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주에서 추사가 그의 막내 아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가 제주에서 맺은 사제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스승다움의 인격을 엿볼 수가 있다.

養生은 한갓 인물만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품도 뛰어나게 아름다와서 형편 없는 풍속을 가진 시골에서 있기 힘든 사람일세, 적막한 가운데서라도 조금 위안을 얻을 수가 있으니 다행이네, 저도 역시 아직 갈 뜻이 없고 계속 이곳에 머물러서 겨울을 난다고 하니 먹여 살릴 방도가 심히 걱정일세. 두 그릇 밥이야 어렵지 않겠지만 가장 옷 해 입는 한 가지 일이 자못 마음 쓰일 뿐이라네<sup>19)</sup>

편지글에서 볼 수 있듯 추사의 자상함은 평생의 스승으로의 면모로서 부족함이 없다. 이를 두고 '너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만난다(찾는다고 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sup>20)</sup>라고 말한다. 추사는 강생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강생

19) 養生非徒所存草草 人品絕佳 未俗之希有者也 幸於寂寞之中 得以少慰 伊亦姑無去意 第此留之而過冬 接濟之道 甚悶 兩孟飯不難 而最是絲身一條路 頗關心耳 (阮堂先生全集 卷2).

20) O. F. Bollnow, *Existenzphilosophie und Pädagogik*, 이규호譯, 《실존철학과 교육》, 배영사, pp. 62~79.

으로 인해 위안받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면이 곧 스승과 제자의 '서로 만남'의 순간인 것이다. 이것은 철저히 인격적인 해후이며 스승과 제자와의 공동제작의 노력이다.

스승의 가르침은 제자의 준비도(readiness) 여하에 의하여 촉발되거나 무효화되기 마련인데 아마도 강생이라는 제자의 준비도는 스승의 가르침을 수용하기에 아직 덜 성숙했었던 것 같다. 강생이 스승 추사의 글씨를 얻어 자기집 벽에 붙였더니 홀연히 무지개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은 그의 글씨 때문이 아니고 산골짜기에 정기가 축적되어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추사는 타이른다.

이백과 두보의 불꽃은 따를 수 없고  
米芾이 수집한 서화와 어찌 같겠나  
우연히 유수암 촌가 벽에서  
하늘을 찌르는 기이한 광채가 있을 뿐이다(의역)<sup>21)</sup>

당나라 이백과 두보의 詩境은 불꽃처럼 꺼지지 않고 천 년 만 년 드높이 전하여 이어져 오고 北宋의 米芾이 수집한 수많은 古書畫 收藏을 어떻게 따라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의 이 詩는 제자의 스승에 대한 이상화를 경고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이러한 자세는 과거의 전통이나 스승의 說에 맹종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들 스스로의 연구 성과와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선학의 설이라도 거리낌 없이 비판한 실학의 사상적 태도를 가르치려는 노력이기도 하였다. 추사는 한번도 자신을 스승이라고 자부한 적이 없었으며 제자가 스스로를 통찰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가르칠 수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의 인생관적 전회를 도와 주었는데 무지개로 상징되는 이상화에 대한 경고는 강생이 아직 스스로를 통찰하고 있지 못함을 경고하는 것이다.<sup>22)</sup>

스승의 인격이란 단순히 인간성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총괄하는 의미이다. 이를테면 스승이 소장하거나 읽고 있는

21) 李杜光芒未可追 米家書畫詎同之 偶然流水朴實壁 有此霄射斗奇 《阮堂先生全集》，卷 10 詩 24.

22) 식련 류의 꾸지람은 곳곳에서 보이는데 제자 趙熙龍이 스승의 서체를 방불하게 모방하였고 梅·蘭도 일가를 이루었으나 文氣가 결여되어 있고 法式에만 너무 구애된다고 질타를 아끼지 않았다.

책들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서도 그러한 분위기를 유추할 수가 있게 된다. 추사가 다른 유배자들과 틀린 가장 분명한 점은 아마도 유배지에서 그가 섭렵한 책들에 의해 가늠될 수 있을 것이다. 추사는 그의 아우나 제자들에게 책들을 많이 부탁하고 읽었는데 그 목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本草; 명나라 이시진이 편찬한 <본초강목> 52권
- 詩醇; 청나라 고종이 선한 <御選唐宋詩醇> 47권
- 律髓; 원나라 方回가 선한 <羸奎律髓> 49권
- 書畫譜; 청나라 孫岳頒 등이 봉지찬한 <御定佩文齋書畫譜> 100권
- 周易折中; 청나라 성조가 어찬한 <御纂周易折中> 22권
- 藏眞帖; 명나라 萬曆 말 陳元瑞 刻의 <渤海藏眞帖> 8권
- 千字文; 양나라 周興嗣가撰한 <千字文>
- 靈飛經; 道經의 일종
- 周易指; 청나라 端木國瑚가 저술한 易書
- 藝海珠塵; 不分卷 48책
- 海國圖志; 청나라 위원이 쓴 서양문물 소개서
- 岐亭詩帖; 소동파가 황주 기정으로 귀양가 있으면서 지은 詩帖
- 淸愛堂帖; 청나라 劉墉의 글을 돌에 새기어 法帖으로 만든 <淸愛堂石帖> 4권
- 古器款識; 鐵帖이 土器를 찾아내어 그 형상을 그리고 款識를 臨摹하여 만든 金文圖錄 <十六長樂堂古器款識> 4권
- 漢隸字原; 남송 襄機간 찬한 書學에 관한 책 6권<sup>23)</sup>

이 밖에도 많은 종류의 책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나이 55세에부터 64세에 걸쳐 추사가 유배생활 동안 그 정력적인 독서행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유배생활이 주는 폐쇄성에 상대하는 서적의 개방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책이란 외형적 선 안에 폐쇄되어 있지 않으며 성곽처럼 담으로 둘러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스스로가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기를, 그리고 독서자로 하여금 그의 내부에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즉 책을 대하고 있는 상황의 특수성이란 독서자와 책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서적의 개방성이

23) 이 목록은 阮堂先生全集 卷2에 실린 추사가 제주 적거시에 쓴 書翰文들을 중심으로 편지 내용 중에 언급된 책들로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秋史 舊藏書目錄」과는 구별을 요한다. 「秋史 舊藏書目錄」에 대해서는 「추사의 教育哲學」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란 나아가 정신의 개방성을 유도하며 따라서 유배적 상황의 폐쇄성, 성리학적 이념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개방성에 깊이 천착했으리라 추측된다. 추사가 접한 대부분의 책들이 금석학과 관련된 것이며 해국도지 같은 책을 가까이 한<sup>24)</sup> 사실을 볼 때 그의 독서의 노력은 시대적 개방성을 가까이 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방성 때문에 제국을 초월하여 중인층의 지식인들을 제자로 많이 들 수 있었던 것이며 제주 유배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그 개방성을 위한 몸부림 때문에 추사는 스승과 제자의 '서로 만남'이라는 가장 은혜로운 순간을 원악의 유배지 제주도에서도 맛볼 수 있었는지 모른다. 추사의 유배생활 동안 제자인 李尙迪이나 許維의 내왕은 자못 감동적이다. 이상적인 스승의 유배시에도 청나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서적들을 갖고와 직접 제주도에서 스승을 만나는데 그 '서로 만남'의 감격의 보답으로 추사는 제자에게 「세한도」를 그려주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감동은 제주유림의 분위기에 청량제가 되었을 것이며 필경 사제관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롭게 깨닫게 했을 것이다. 유배가 풀리고 조정으로 복귀했을 때 추사가 제주에서 인연을 맺은 제자 박계침을 부른 것도 그러한 사제관계의 논리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감동을 질시한 사람의 농간에 의해 박계침이 죽은 것을 볼 때 역설적으로 추사의 제자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였던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당시의 제주도에서는 중요하게 읽는 책들이란 것이 단지 通鑑과 孟子에 불과하였으나<sup>25)</sup> 추사의 독서목록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충격이었으며 격조 높은 교육적 강화였다. 본초강목 등의 책은 제주도민들이 그 필요성 때문에 돈을 모아 책 구입을 추사에게 부탁하기도 했는데<sup>26)</sup> 이러한 과정은 특히 실학의 새로운 학문적 스타일 때문에 제주도민들에게 큰 공헌이 되었던 것이다.

24) 海志好作近日消遣法 (阮堂先生全集 卷2)

25) 金泰能: Ibid., p. 204.

26) 本草等三種書 此中人聞之 又隨殘廢人 專此上送 以爲數致之指 其意不可遏住, 茲以裁書付去 隨即堅裏以送如何如何. (阮堂先生全集 卷2)

## 4. 맺 는 말

추사는 성리학적 질서관이 점차 문제시되고 그 대안으로서 즐기치게 실학이 논의되던 시대의 학자이며 교육자이다. 따라서 그의 생애 역시 그가 살던 시대 정신 및 사회상과 무관할 수 없었다. 실학이라는 시대정신에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충실했고 사회상의 파행적 결과로 인한 유배 때문에 그의 생의 후반기를 철저히 고통하였다. 그러나 그의 교학적 생애는 참으로 은혜로운 만남들의 연속이어서 첫번째 스승인 박제가를 통해 실학에 눈을 떴고 두번째 스승격인 옹방강과 완원을 통해 금석학에 성숙할 수 있었다. 그러한 만남의 결과로 추사는 특유의 시서화 일치의 방법론을 체득할 수 있었고 실사구시설이라는 나름의 학문적 분위기를 이끌 수가 있었다.

55세로 마감되는 그의 평탄한 출사기는 제주도 유배를 오게 됨에 따라 시련을 맞게 되는데 그러나 유배지에서도 그의 사람됨의 넉넉함은 유감없이 발휘되어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유배지 제주도민들과의 관계맺음에도 많은 기여를 한다. 그의 스승됨은 스스로의 사람됨에서 연유한 것이지만 그 사람됨의 넉넉함 때문에 유배지의 원악을 불문하고 제자들이 내왕하고 또한 제주유림들과도 사계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제주유림과의 사계관계 형성은 그 폭이 넓고 詩文이나 書藝는 물론 전각에 이르기까지 그의 가르침이 행사된다. 비록 구체적인 모습으로 추사의 실학사상에 입각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서예나 전각의 영향력을 미루어 짐작할 때 실사구시의 추사의 사상도 전달 되었으리라 짐작이 간다.

중양이나 혹은 영남, 기호지방 등에 비해 학문적 논의가 절대적으로 빈약했던 제주도로서는 유배인들의 적거가 곧 학문적 개안으로 연결될 수 있었고 유배인들의 교육감화력은 제주지역의 문풍 진작에 최대의 변수로 작용되었다. 그러나 유배인들의 그러한 활동은 일개인의 恩典的인 것이라기보다는 사상사적 계보의 즐기찬 흐름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이해되어진다. 추사의 경우를 보면 실학의 사상계보를 간과해 놓고 독자적인 활동으로 추사의 교학활동을 볼 수만은 없으며 실학의 사상계보 또한 넓게는 성리학의 사상계보인 도통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사의 끈덕진 흐름을 통해 추사의 교학활동이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에서 추사는 몇몇 출중한 제자들을 거느릴 기회를 가졌는데 그 제자들과의 교학적 관계란 일방적이며 권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만남'의 사제관계를 형성했으며 그러한 관계 형성에 있어 추사는 방대한 양의 서책에 대한 개방적인 섭렵 등을 통해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사는 다른 유배인들과 구별되는 활동 면모를 보였으며 특히 종합적 교육인간학으로서 유학의 특징을 예술교육적 측면에서 새롭게 제주도민들에게 보여 주었다.

추사를 일컬어 단순히 서도가나 혹은 금석학자 정도로 보는 경향도 있지만 詩·書·畫 혹은 전각 등의 일치사상은 예술교육의 핵심과 관련이 되며 실사구시적 방법론은 교육철학적 인식의 새로운 모습이다. 특히 사제관계의 개방적 성숙성은 교육이 지향하려는 목표이며 유배지 등에서의 즐기찬 교학활동은 교육의 현재성에 대한 응답이다. 그러므로 그는 뛰어난 교육철학자였으며 그 실천인이었다.

## 참 고 문 헌

-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新誠文化社, 影印本, 1972.
- 金泰能; 《濟州道史論攷》, 世起文化社, 1982.
- 李奎浩譯; 《실존철학과 교육》, 배영사, O. F. Bollnow, *Existenzphilosophie und Padagogik*.
- 梁淳秘; “朝鮮朝 流配文學研究 : 濟州島를 중심으로”, 建國大博士學位論文, 1982.
- 梁淳秘外; 《제주문화의 재조명》, 일념, 1986.
- 丁淳睦; 《退溪의 教育哲學》, 지식산업사, 1986.
- 金宗業; 《耽羅文化史》, 조약돌, 1986.
- 劉明鍾; 《韓國思想史》, 이문사, 1981.
- 제주도교육연구원; 《濟州教育通史》, 신일인쇄사, 1974.
- 藤塚鄰; 《清朝文化東傳の研究》, 日本, 國書刊行會, 1975.
- 《문학사상》, 50호, 165호
- 《韓國의 美》, 중앙일보사, 1981.